



오늘부터 아시아 남녀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출격 단체전 우승 없어…조별리그서 대만·싱가포르와 경쟁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사상 첫 아시아 단체선수권 금메달을 노린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승선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3일부터 8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 남녀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2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는 아시아 배드민턴 최강국을 가리는 국가대항전 성격의 대회다. 경기 방식은 단식 3경기와 복식 2경기를 치러 5전 3선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출전국들은 먼저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 단판 승부를 거쳐 최종 우승국을 결정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 남녀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한다. 이 대회에서 4강 이상 진출 시 대세계남자단체선수권(토마스컵)과 세계여자단체선수권(우버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배드민턴 강국이지만, 아직 아시아 단체선수권 우승 경력이 없다. 타이트한 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주로 2전 금 선수를 파견해서다. 경쟁국 또한 막강하다. 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강호들이 대거 배치돼 있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2년 여자 단체전에서 기록한 준우승이다.

남자 단체전은 2024년 대회를 포함해 총 4차례 동메달을 획득했을 뿐, 결승 무대를 밟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첫 우승을 노린다. 예년과 달리 남녀부 모두 세계적인 상위 랭킹을 이루는 완전체 전력을 출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안세영의 출전이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

이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 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올해 역시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와 인도오픈 2연패라는 금자탑을 연달아 쌓아 올리면서 최상의 커리어를 자랑했다.

복식조 또한 막강하다.

여자 복식의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공항·세계랭킹 3위) 조는 지난 시즌 왕중왕전격 대회인 월드투어 파이널스 2연패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여기에 세계랭킹 5위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 역시 메달권을 정조준한다.

더욱 고무적인 건 경쟁국들의 최정예 멤버가 불참한다는 점이다. 가장 강력한 상대인 중국은 왕즈이(세계랭킹 2위), 전위페이(세계랭킹 4위), 한웨(세계랭

킹 5위) 등 여자 단식 강호들이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남자 단식 최강자인 스위치(세계랭킹 1위) 역시 불참하고, 여자복식 최강 류성수-탄닝(세계랭킹 1위) 조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도 아마구치 아카네(세계랭킹 3위), 여자 복식 후쿠시마 유카-마쓰모토 마유 등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

부상 등의 변수만 없다면 한국의 우승이 점쳐진다.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BWF 투어까지 수많은 트로피를 수집한 안세영 입장에서도 새로운 이력을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반면 남자대표팀의 경우 큰 전력 공백이 생겼다. 남자 복식 간판 서승재가 지난달 말레이시아오픈에서 당한 어깨 부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이로써 남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 조의 활약은 이번 대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김원호는 현장에서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춰 전력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유태빈(김천시청·세계랭킹 73위), 최지훈(삼성생명·세계랭킹 110위), 박상웅(요네스·세계랭킹 137위), 조현우(김천시청·세계랭킹 217위) 등 단식 주자들의 국제 경쟁력 또한 과제다.

이번 대회 조 편성 결과 한국 여자 대표팀은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2조에 편성됐다. 남자 대표팀은 대만, 홍콩과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사상 첫 아시아 단체선수권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이 안세영의 활약에 힘입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gwangnam.co.kr



나주공공스포츠클럽 세파티크로전문선수반.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광주·전남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힘 쏟는다

지정스포츠 클럽 공모 각각 26·47개 프로그램 선정
시·도민 참여 확대…인재 발굴 선순환 시스템 구축

광주·전남체육회가 지정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을 쏜다. 2일 광주·전남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6 지정스포츠 클럽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9억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전국 17개 시도 163개 지정스포츠 클럽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 7개 지정스포츠 클럽, 26개 프로그램(전문 7,

특화 19) 이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선수반과 특화프로그램에는 1년간 각각 3억5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문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된 클럽은 서구스포츠클럽,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송원스포츠클럽, 동강공공스포츠클럽, 빛고을스포츠클럽, 광산남부스포츠클럽, 광주다음스포츠클럽이다.

시체육회는 올해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스포츠 클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지정스포츠 클럽 육성 및 훈련용품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광주 스포츠 클럽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해를 스포츠 클럽 육성 및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전략적으로 공모사

업을 준비해왔다"며 "선진국형 선순환 체육시스템이 정착돼 선수 육성 구조가 스포츠 클럽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전남도체육회 역시 이번 공모에서 15억9500만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도체육회는 전문선수반 12개와 특화프로그램 35개 등 총 47개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전문선수반 12개 프로그램에 총 5억 7500만원, 특화프로그램 35개에는 10억 2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클럽별로는 여수스포츠 클럽이 총 5개 프로그램, 2억 1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가장 많은 선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 목포·순천·나주스포츠 클럽을 비롯한 다수의 지정스포츠 클럽이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각 클럽은 종목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망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지정스포츠 클럽이 전문선수 육성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클럽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gwangnam.co.kr

태국 분잔, KLPGA 인도네시아 오픈 '정상'

드림 원터투어 두 번째 대회서 13언더파로 우승

짜라위 분잔(27·태국·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드림 원터투어인 인도네시아 여자오픈 2026 총상금 60만 달러)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분잔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다미아인다 골프클럽(파 72·예선 6443야рд·본선 6466야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마지막 날까지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분잔은 1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2022시즌 LPGA 엘론 투어(2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태국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분잔은 2025시즌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16위를 기록, 지난해 KLPGA 정규 투어에 데뷔했다.

KLPGA 2026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15위를 기록해 올 시즌 정규투어 출전권을 다시 획득했다.

분잔은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해서 매우 기쁘다. 이번 대회는 2026시즌 첫 대회인데, 우승으로 올 시즌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가 캐디로 함께했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온전히 플레이에만 집중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gwangnam.co.kr

광주FC, 남해 전지훈련 투어…팬 소통 강화

프로축구 광주FC가 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는 오는 6일 2차 동계 전지훈련

련이 진행 중인 남해스포츠파크에서 '2026 시즌 광주FC 남해 전지훈련 팬 투어'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팬 투어는 팬들이 직접 훈련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선수단 훈련 관람, 팬 사인회, 선수단과 함께하는 경품 추첨, 저녁 식사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인당 2만원이며, 참가 신청은 3일 오후 3시까지 티켓팅을 통해 가능하다.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다.

광주는 이번 팬 투어를 통해 전지훈련 기간에도 팬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만 느낄 수 있는 훈련 분위기와 선수단의 진솔한 모습을 공유할 예정이다.

광주FC 관계자는 "앞으로도 팬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